

우리나라 어촌문화를 피부로 이해한 푸른눈의 사람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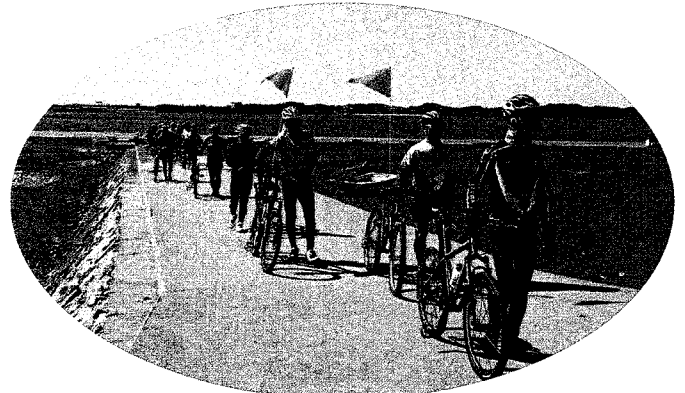
-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아름다운 어촌 찾아가기 행사 실시 -

한국어촌어항협회는 10월 13~14일, 17~18일, 24~25일 3차례에 걸쳐 전남 영광군 염산면 두우어촌체험마을과 경기도 평택 권관마을, 안산 선감마을에서 장애우와 외국인 학생, 자전거 동호인 등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아름다운 어촌 찾아가기 행사를 가졌다.

13~14일과 24~25일에 실시된 행사는 두우어촌체험마을에서 성북구 수화통역센터 장애우 36명과 연세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외국인학생 37명이 참가하여 우리나라 아름다운 어촌의 모습을 소개하고 평소 접하지 못했던 소중한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였다.

또한 17~18일에 실시된 행사는 자전거 동호인들이 어촌체험은 물론, 평택 권관마을에서 안산 선감마을까지 자전거 하이킹을 즐기면서 수려한 우리나라 연안의 풍경을 즐기는 시간도 가졌다.

이번 행사에 참가한 다양한 참가자들은 1일 어부가 되어 마을 사람들과 함께 후릿그물체험과 염전체험, 풍등날리기 등 어촌에서 즐길 수 있는 특별한 체험과 함께 불갑사, 마라난타사, 어촌민속전시관 등 다양한 지역관광도 실시했다.



▲ 자전거하이킹

이후 저녁에는 그날 직접 잡은 고기와 더불어 전어, 송어 등 가을 어촌의 정취를 물씬 느낄 수 있는 수산물시식회와 함께 마을 주민과 하나되는 친교의 시간도 펼쳐졌다.

이번 행사는 아직까지 많이 알려지지 않은 우리 어촌 관광자원의 우수성을 사회 다양한 계층과 지구촌 사람들에게 알림으로써 향후 어업인들의 국제화 마인드 제고 및 어촌관광의 다양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갯벌체험



▲ 갯벌체험



▲ 풍등날리기



▲ 염전체험